

## 서울大公園 재규어 脫出소동

### 맹수사 건축은 신중해야...

○...지난 7월27일 상오 7시쯤 집중폭우로 果川 서울대공원 맹수사 축대가 무너지며 부서진 철책사이로 아메리카표범 재규어가 탈출, 果川일대 주민을 공포속에 몰아 넣었으나 35시간 30분만인 28일 하오 6시30분경 대공원 맹수사 뒤쪽 淸溪山계곡에서 포수 鄭奎鎬씨(52.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305의 2)에 의해 사살. 재규어 탈출소동으로 경찰은 6개 중대 병력을 투입했고 군인, 민간인포수등 수색대의 노고가 많았는데 鄭씨는 28일 하오 6시30분경 2백30m 높이의 淸溪山 8부 능선에서 노송뒤에 재규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 7m앞까지 접근하다 재규어가 자신을 덮치려고 뛰어오르는 순간 브로닝 2연발 엽총을 발사. 머리에 명중시킨것.

맹수사설계 건축은 보다 엄격한 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

## 美加州서 응답노린 곰사냥

○...한국인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곰의 불법사냥이 급증되고 있다고 라이프誌가 8월호에 보도. 캘리포니아주사스타郡 산속에 내장만 파헤쳐진채 버려진 곰 시체사진을 게재한 이 잡지는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10년간 한국인 이민수가 7만명을 넘어 응답의 수요가 커졌다고 지적. 이 잡지는 이같은 곰의 밀렵 행위까지도 한국교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언급치 않았다. 이잡지는 현재 암거래 응답가격은 온스(28g)당 약 3백40달러 수준이라 보도하고 이는 마라화나와 금값의 중간정도라고 밝혔다.

곰은 미국의 50개州 가운데 43개州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7. 29. 中央日報)

## 暴雨로 山蔘발견 橫財

○...忠北 槐山군 연풍면 유상리 요동마을 白승재씨(37. 농)는 지난 7월26일 오후 마을뒷산 속칭 사자골에서 40여년생 산삼 한뿌리를 찾아 횡재. 이날 白씨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마을뒷산에 설

치한 자신의 표고밭을 돌아보고 귀가 하는데 산골도랑과 자신의 논두렁사이의 흩터미속에 산삼 1뿌리가 뿔혀 있었다고. 해발 6백80여m로 알려진 요동마을 뒷산을 마을 사람들에게겐 명산으로 알려져있는데 이 산삼은 폭우로 산기슭 흩터미가 무너지면서 뿔힌것으로 본다.(7. 28. 聯合. 大邱毎日)

## 八公山, 八公컨트리클럽開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도립공원 八公山에 자리잡은 八公컨트리클럽(회장 全達出)이 7월25일 개장. 八公山中턱 해발 5백m(30만평)에 위치한 팔공컨트리는 72과 18홀의 국제규격을 갖춘 다이내믹한 코스. 순회장은 동클럽 한강수사장의 연혁소개에 이은 인사에서 「이곳은 대화의 장으로 감정을 조화·통제하는 능력을 배양할뿐아니라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라고 강조.(7. 25. 大邱毎日)

## 公害, 地球오존층 侵蝕

○...지구둘레의 오존층을 침식하는 화학물질공해로 향후 80년사이에 美國에서만도 1억명의 피부암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22일 경고. 유럽 환경당국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롱스트레스」박사는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서기 2075년까지 추가로 1억명의 피부암환자가 미국에서 발생하며 2백만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할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6. 24. 로이터)

## 北韓, 올해 50종 무더기로 天然記念物指定

○...북한은 지난해말까지 3백90종의 동·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었는데 금년에 50종을 무더기로 지정. 4백40종으로 늘어났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이 4백40종 가운데는 학술적가치등과는 전혀 관계없이 金父子우상화선전과 관련해 지정된것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강선 포플러나무」 「은정 배나무」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전해졌다. 남한엔 87년현재 3백40종의 천연기념물로 동·식물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內外통신 綜合)